



2017년 9월 10일(제840호) 연중 제23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조인을 해주는 용기

가톨릭교회에서 주관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몇몇 신부님들과 인사를 드리는 중에 어느 원로 신부님의 코에 코털이 길게 내려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저는 그 신부님을 볼 때마다 자꾸만 길게 내려온 코털만 눈에 띄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신자들을 만나러 가실 텐데, 주변에 비슷한 연배의 친한 신부님들이 이야기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못 보는 건지 못 본척하고 있는 건지 아무도 이야기를 안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다 연세도 많으셔서 뭔가 예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조심스럽더라도 코털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는 것이 이후 많은 신자들을 만나러 가실 그 신부님을 사랑해 드리는 일이 아니었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나보다 계급이 높고, 연배가 높고, 거기에다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닐 때, 그 사람의 코에 코털이 나와 있으면,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으면 참 난처합니다. 말해주고 싶은데, 말을 꺼내면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해주면 계속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결코 유익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막상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그것이 죄라고 말해주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즉시 변하지도 않을 것 같고, 괜히 그 사람의 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오히려 그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서 관계가 틀어질까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상관이나 손윗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복음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가 마치 안 친한 사람의 코털 같고 이빨에 낀 고춧가루 같다 하여도, 나를 위해, 그리고 그를 위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말하기 조심스럽다면 그 사람과 친한 한두 사람을 통해 서라도 그가 저지른 죄를 깨닫도록 도와야 하며, 그것도 안 된다면 교회에라도 알려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언행이 죄였음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며, 또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죄에 대해 조언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 합니다. 그러나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네는 한마디 조언이, 그 사랑의 실천 하나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혁(베드로) 신부
토성대(공군 3포비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예제 33,7-9
- 회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제 2 독 시** 로마 13,8-10
-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 복음** 마태 18,15-20
- 영성제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진리를 살다

제1양식

이 양식은 로마 전문(Canon Romanum)이란 명칭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 오늘날에도 로마 미사 전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감사기도의 특징인 감사와 찬양의 요소가 빈약하고, 미사의 식사 특성을 잘 드러나지 못하는 반면, 제사 성격이 매우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거룩한 변화의 주체이신 성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찬미, 감사드리는 기도인데 이 전문(典文)에는 그보다 청원의 내용이 많으며 구조도 복잡합니다. 그렇더라도 제1양식은 항상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주님 대축일(성탄,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대축일)에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제2양식

가장 널리 애용되는 이 양식은 3세기의 히폴리투스 감사기도를 모범으로 삼아 만든 것이라 흔히 ‘히폴리투스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양식은 제1양식의 결점을 보완하여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에 대한 기념과 찬양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이나 특별 축일이 아닌 연중 평일이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기도입니다. 보통으로 사제들은 이 양식을 선호하는데, 이유는 네 양식 가운데 가장 짧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준비

제3양식

이 양식은 현대의 신학자들이 제1양식의 특징을 살리면서 동시에 제1양식의 결점과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로마 전례의 감사기도로 완성시킨 양식입니다. 제사와 봉헌의 요소를 많이 표현하는 로마 전문의 내용을 담으면서도 감사기도에 필수적인 식사 의미도 강화했습니다. 이 양식은 고유감사송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감사송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하고 쉬운 내용 때문에 신자들에게 잘 맞는 사목적인 양식으로 특히 주일, 축일, 성인 기념일 등에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제4양식

이 양식은 동방 교회의 전례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생긴 전통을 이어 받은 바실리오의 감사기도를 문장과 표현에 있어서 방 교회에 맞게 정리한 감사기도입니다. 구세사가 잘 정리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서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피정이나 소공동체 미사전례에 적합합니다.

사제들은 이들 네 가지 감사기도의 특징과 의미를 잘 새겨 가급적 여러 양식을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기도나 사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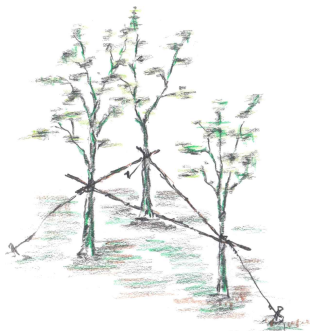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지 별책』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벗

서로 의지하며
이 시간을
살아 갈 수 있다면.

참 오래 벗 할만
할거예요.

서로 의지하며
서로 바라봐 주며

이 시간
또 내일
함께 해요.
좋은 벗으로.

상화이야기

에제키엘의 환시



오늘 그림은 에제키엘 1장에 나오는 그의 환시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성경의 내용은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형상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중략) 저마다 얼굴이 넷이고, 날개도 저마다 넷이었다. (중략)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방으로 사람손이 보였고, 네 생물이 다 얼굴과 날개가 따로 있었다. (중략) 그들의 얼굴 형상은 사람의 얼굴인데, 넷이 저마다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었으며, 독수리의 얼굴도 있었다. (중략) 생물들 옆 땅 바닥에는 네 얼굴에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이하 생략).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에제키엘 1장 일독을 권한다. 사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상상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본인도 신학자가 아니기에 라파엘이 상상한 환영을 보고 잠시나마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겠다. 정작 이 환시를 보는 에제키엘은 그림의 왼쪽 아래에 티끌만 하게 그려져 있다. 그러나 그림 전체를 압도하는 위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라파엘로(1483-1520)
1518년 작, 패널 위 유화 400 X 300 mm
피티 궁(宮), 이탈리아 피렌체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3주일: 중경 김신복 신부

◆ 교구장 동정

- 주교 영성 모임
 때·곳: 9월 11일(월)-12일(화), 마산 가톨릭교육관
- 흑룡(해병 6여단) 성당 신임사제 방문
 때·곳: 9월 13일(수), 의정부 한마음 수련원

◆ 군인신학생 피정

때: 9월 12일(화)-15일(금)
 곳: 의정부, 한마음 수련원

◆ 신임 군중신부 연수

때: 9월 12일(화)-14일(목)
 곳: 의정부, 한마음 수련원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